

전남어촌특화센터, 조선이공대와 어민 소득·삶의 질 향상 맞손

어촌뉴딜 300 역량강화사업 협약

조선이공대 평생교육원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전남지역 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조선이공대(총장 조순계)는 “조선이공대 평생교육원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14일 대학 프레젠테이션실에서 ‘어촌뉴딜 300 지역역량강화(SW)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을 비롯해 박연희 평생교육원장,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최연수 센터장, 임중현 사무국장, 원준희 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어촌(여수시 직포항·문병항·우학항, 진도군 신기항, 강진군 하저·가우도항)지역의 성공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했다.

협약을 바탕으로 조선이공대 평생교육원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로부터 국고를 지원받아 2022년 11월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30일까지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양보호사, 조리사, 수제맥주제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이공대 평생교육원은 어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제작, 판매,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도 추진하게 된다.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은 “이번 협약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어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함께 삶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대학 평생교육원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광주시의회, 이웃사랑 송년 나눔 행사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는 14일 광주시 5개 자치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할 김장김치와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송년 나눔행사’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전남적십자, 취약계층 300세대 선물주머니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 20여명이 최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사랑의 선물주머니를 제작했다. 선물은 자문위원들이 1년 동안 매월 틈틈이 수건으로 제작한 주머니에 김, 멸치, 미역, 핸드크림, 양말, 참치캔 등 12가지 생필품을 넣어 만들었다. 선물은 총 1200만원

상당으로 취약계층 3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영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은 “위원들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선물이 우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금파공고 용요한·지승렬군, 한국철도공사 합격

광주 금파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잇따라 공공기관에 채용됐다.

14일 금파공업고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 고졸 신입사원 채용에 3학년 용요한(왼쪽)·지승렬(가운데)·김정현(오른쪽)군이 최종 합격했다.

이들의 합격은 교사들의 학생별 맞춤형 입사 지원을 통해 졸업 전 취업을 이룬 것이라 더욱 값진 결과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용요한 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짜여진 취업준비 프로그램과 학생 중심의 맞춤형 수업 지도가 기업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승렬 군은 “공사에 입사한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장미중 금파공업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파공업고등학교는 군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시작으로 도제학교 사업,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



〈금파공고 제공〉

성사업,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사업, 광주형 일자리 거점학교 사업, 학제적 공간혁신 사업 등을 통해 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 연임



제48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에 김동훈(사진) 현 회장(한겨레신문 기자)이 연임됐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지난 13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 투표에서 유효투표수 5060표 중 3934표(77.7%)의 찬성을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전체 투표율은 1만374명의 유권자 중 5060명이 참여해 48.8%를 기록했다.

1995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한 김 회장은 기동취재팀과 법조팀, 정당팀, 전국부 등에서 근무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겨레 지회장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4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말까지 2년간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푸리가 식사교실(재)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50 불편해도 괜찮아 시즌2 55 UHD 승터	00 학교 2021(재)	15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45 주라기갑상3	00 애니갤러리 30 스페이스 동요보감
			00 12 MBC 뉴스 20 웃소매 붉은 끝동(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⑬	00 아마도 마지막 존재 이스트 사이드 스토리 50 불편해도 괜찮아 시즌2(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입(재) 30 TV 유치원	20 8시 뉴스 55 기분 좋은 날(재)	00 뉴스브리핑
⑭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재널		20 8시 뉴스 55 기분 좋은 날(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⑮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인입(재) 30 TV 유치원	20 8시 뉴스 55 기분 좋은 날(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⑯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55 5 MBC 뉴스	00 2021 좋은 이웃 밝은동네 대상(재)
⑰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V-우주수호대 15 렛츠 고릴라 30 풀짚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UHD 특집다큐 리플레이스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내고향 전파(재)
⑱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0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티마스페셜
⑲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사랑의 파배기	05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⑳	30 국가대표 와이프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㉑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학교 2021	0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00 골 때리는 그녀들
㉒	00 생로병사의 비밀 특별생방송 50 더 라이브	40 갓파더	30 라디오스타	40 백종원의 골목식당
㉓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㉔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통합뉴스룸 ET(재)	10 오마이싱어	20 나이트라인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유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상어 울리와 윌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게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코요태	12:10 극한직업	19:00 미스터 마구
07:15 출동! 슈퍼윙스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0 한국의 둘레길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EBS 다큐프라임	19:50 문해력 유치원
07:45 최고의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댕댕양 유치원	15:25 클래스 e	〈겨울엔 여기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한여름의 보물섬, 호주 등부)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마사와 곰	21:30 한국기행
09:00 시공	16:15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3부
09:15 불구야 말해줘3	16:30 댕댕양 유치원(재)	그 여자의 두 번째 집)
09:30 추피와 친구들	16:50 내 친구 문덕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05 바닷가 사람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12일 丁酉) ☎ 010-9790-8237

子 36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재가 된다. 48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60년생 귀한 육이 진흙 속에 파묻혀 있도다. 72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로다. 84년생 확실하지 않다면 삼가는 것이 면책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96년생 초기의 행령이 끝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6, 88

丑 37년생 약간의 활동해도 판이란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49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61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다. 73년생 주변인들과의 조화와 상호부조가 절실하다. 85년생 연원을 알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97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7, 72

寅 38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50년생 겉보기에는 가득 찬 것 같지만 내용은 텅 비어 있다. 62년생 도약을 위한 고통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74년생 제 몫을 확실해 해낼 것이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86년생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98년생 투명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7, 67

卯 39년생 순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된 양상을 띠게 된다. 51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63년생 지난 세월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75년생 무리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87년생 막연한 집착은 행복자를 하락시킨다. 99년생 안심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2, 82

辰 40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52년생 상당한 거리를 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4년생 만만하게 봐다가는 큰코다칠 수도 있느니라. 76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88년생 전방위적 인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00년생 점점 활기를 띠면서 운로가 왕성해진다. 행운의 숫자 : 22, 53

巳 41년생 최고의 대안은 경험과 중론 속에서 나오는 법이다. 53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5년생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역할을 하게 되리라. 77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89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 나가 비가 내리는 어처이다. 01년생 절대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38, 74

午 42년생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4년생 다양한 측면에서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6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낫다. 78년생 자의적인 발상은 오판을 야기하며 일을 그르치게 한다. 90년생 상대의 조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02년생 도모하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13, 96

未 43년생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 되어 주리라. 55년생 오히려 인한 충동이 있을 수도 있다. 67년생 협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79년생 가능성이 미약하므로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91년생 현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03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71

申 32년생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44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56년생 점점 복잡 다단해지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낳는다. 68년생 상대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간단한 문제이다. 80년생 장애 요소가 나타나겠지만 손을 쓰면 곧 수습되리라. 92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4, 62

酉 33년생 경험을 되살리면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 45년생 조금만 더 가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57년생 행령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69년생 매듭이 풀리면서 일시적으로 진행되겠다. 81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경시하지 말고 예의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93년생 뒷방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3, 52

戌 34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46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58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0년생 어떠한 구조로 설정 되느냐가 문제이다. 82년생 보편적인 것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94년생 착실하게 정진하면 기쁨과 성취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66

亥 35년생 우연한 사고방식이 순조로움을 이룰 것이다. 47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하게 대비하라. 59년생 지나치면 역효과를 낳으면서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71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83년생 문제점은 반드시 짚어주고 시정해야 하겠다. 95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말짱을 떠는 어른 셈이다. 행운의 숫자 : 31, 58